

나의 불교학

리영자 교수

나는 여유롭다. 하지만 연구를 쉬지는 않는다. 교수직은 은퇴가 있지만 학자는 은퇴가 없다. 눈이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책을 볼 수 없을 때까지 공부를 그치지 않는 것이 학자다. 내 삶은 내가 평생 일궈 온 학문과 다르지 않다. 불교학을 하며 매순간 즐거움을 느꼈고 그 희열은 자양분이 돼 나를 성장시켰다. 매일 아침 빵 두개를 구워 끼니를 때웠다. 두개는 대학노트와

책을 들고 다닌 것도 너무 힘들었다. 학비가 없어 눈물로 고민하던 밤도 많았다.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바다로 헤엄쳐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 되돌아가면 뒤를 돌아봐도 이미 떠나는 배사장은 보이지 않는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갈 곳도 없다.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 뿐.' 이것이 학문의 길이다.

내 삶에, 내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항상 도움이 따랐다. 돌이켜보면 모두 부처님 가르치고말고 달리 말할 수 없다. 우연히 찾은 도서관에서 <석가여래행적송> 등 논문작성에 필요한 고서를 만난 인연을 비롯해서,故 대법선 보살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천태학자 리영자는 존재할 수 없었다.

“배움 중도 포기는 바다 한 가운데서 헤엄을 멈추는 것”



리영자 교수는 1936년 강릉 출생. 평생 천태사상 연구의 외길을 걸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불교학자다. 1966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천태대사의 교판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에서 1982년 <한국천태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불교여성학 개척자기도 한 이 교수는 저서로 <불교와 여성> <천태불교학> 등이 있다. 은퇴 후에도 법화학림(서울 장충동 소재)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쳐며 '법화학 천태학 연구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지창규 교수(동국대), 최기표 교수(금강대), 오지현 박사, 김은희 박사 등이 논문지도를 받고 천태학연구에 매진 중이다.

내가 불교와 처음 인연 맺은 것은 수복 직후였다. 시내는 폐허 그 자체였다. 불교는 정화운동 이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다. 그때 내 나이 21세로 당시 고려대 법학과에 합격했지만 부친 반대로 진학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였다. 우연히 동아일보에서 당대의 석학을 모시고 대각사에서 시국 강연회를 한다는 광고를 봤다. 친구와 함께 강연회를 찾았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신발을 두 번이나

“‘금강경’에 감동 불교공부 시작 빵 두쪽으로 버티며 힘겹게 공부

잃어버렸다. 시국강연회 일정이 끝나자 참석자들을 주축으로 <금강경> 강의 모임이 생겼다. 호기심에 강의를 들었다. <금강경> 강의를 처음 듣고 상당히 멋지다는 생각과 함께 감동이 밀려왔다. 광덕 스님과 대법선 보살 등이 젊은 사람들을 이끌며 '대각회'를 결성했다. 젊은 사람이 귀해 내게 재물 소임을 맡기며 계속 나오라 했지만 법회에는 자주 참석하지 못했다. 대법선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같은 크나큰 자비와 포용력으로 나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줬다. 대법선 보살은 법무장관 등을 지낸 故 황산택 박사 부인이다. <금강경> 법문은 내게 큰 감동이였다. 경전에 갇힌 것이 아닌 마음을 넘나드는 법문이었다. 이때 배운 사구계 한구절 한구절은 내 가슴에 남아 평생 진리의 등대가 됐다. 특히 '법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은 당시 폐허였던 서울 시내 모습 때문인지 내 어린 마음에 깊이 각인됐다. 이어지는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 구절에 나는 '여래'가 무엇인지 당시로

는 알지 못했고 막연히 진리였거나 했다. 나는 평생을 여기 바쳐도 되겠다고 결심했다. 법문만 듣고 배워서야 무언가 부족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귀동냥으로 들은 부처님 법문을 갖고 무언가 이루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그러던 차에 나는 대법선 보살 권유로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다. 한국은행 외국부에 근무하며 학교공부를 함께 했다. 학교에

석사 후 연구조교가 돼 교통비만 받고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에 매진했다. 공부에 단지 좋았다. 마침 일본 동경에 있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김지연 씨를 통해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 일본 학풍은 일단 학문이 체계화되면 선학들이 연구한 것이라 존중돼 감히 비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논문은 천태사상을 역사성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긍정적으로 결말을 맺었고 이런 점들이 천태종 승려로 <마하지관> 등을 저술했던 내 은사에게 주목 받았다. 나중에 알게됐지만 내 은사는 남학생을 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딸이 동경대를 나온 재원이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비자 발급 문제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면 3년이 걸렸다. 유학생들은 금전적인 부담이 컸다. 그때 조영기 총장이 환희성 보살(관훈클럽 회장)을 소개해 장학금을 받게 해줬다. 은사인 세키구찌(關口眞大) 박사 집에 초대받았을 때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를 따들이지만 김 한 톨을 신문지로 돌돌 말아 선물로 들고 갔다. 3층 건물로 된 집은 1층과 2층을 살림을 했고 3층은 서재였다. 3층 서재는 메이저시대부터 3대에 걸쳐 꾸민 서재로 처음 본 순간 어마어마

하지만 400자 원고지를 직접 쓰며 두꺼운 분량을 채울 만큼 내게는 체력이 있어 입두가 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들을 밤에 말리고 있었다. 호기심에 책들을 돌려보면 나는 <선학입문> 등 세권의 책을 발견했다. 논문 주제로 고민하던 것들이라 환희심에 가득했다. 어렵게 책을 빌려다. 그 길로 바로 프라자 호텔 앞까지 달려가 당시 1부 50원씩 주고 복사를 했다. 고서를 복사까지 하니 거무스름한 것이 더 멋있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들로 나는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다. 두번째 우연은 천재의 <호산록>을 찾은 것이다. 나는 이 종의 박사에게서 '송광사에서 본 듯하다'는 말만 듣고 찾아가 송광사 책들을 뒤졌다. 그러다 <죽미기>라는 해남 대흥사 기록서 뒷부분에 합철된 것을 발견했다. 이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초서로 돼있어 읽을 수가 없었다. 혼자서 파고 또 파다. 그렇게 1970년대 초부터 공부하기 시작해 1982년 11월 <한국천태사상 연구>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꼬박 10년 걸렸다. 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들은 공부하는데 운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한다. 실

꿈이 있다면 서원하고 정진하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한 분량의 책들에 놀라 충격받았다. 학교 뿐 아니라 집에서 항상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조성된 환경이 너무 부러웠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내게 '문화쇼크'였다. 귀국 후 은사를 초청했을 때 박사 학위 논문을 쓰라는 권유를 받았다.

제 내가 공부하며 살아온 길은 매순간마다 로또 당첨 같은 행운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연구법을 안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꿈이 있다면 서원하고 정진하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정리=조동성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제6회 명절차례 시연 및 출판기념법회 초청의 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겨레가 다같이 쇠는 차례에 이름에도 반듯하게 들어 있는 차(茶)를 쓰지 않고 술을 쓰는 풍토를 바로잡으려고 90년대 초반부터 "차(茶)올리는 차례지내기"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올 해에도 모든 국민이 차례를 맞아 맛있는 감로차(甘露茶)를 조상님께 올리기를 바라면서 "제6회 명절차례 시연 및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사명 : 제6회 명절 차례 시연 및 출판기념 법회
- ◆ 날짜 : 2008년 1월 29일 (화) 오후 4시 ~ 7시
- ◆ 내용 : 제1부 차례시연 | 제2부 출판기념법회(부루나의 노래:법현 지음) | 제3부 다과(공양)
- ◆ 회비 : 2만원 (책 및 자료와 후원금)
- ◆ 장소 :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 (태고종 총무원 법륜사) *경복궁 건너편 법륜사 뒤
- ◆ 참가확인문의 : 02)386-4755, 386-4720, 732-3920(법륜사)
- ◆ 홈페이지 : www.opentemple.or.kr
- ◆ 카페 : http://cafe.daum.net/buruna21
- ◆ 우리은행 1005-000-974553 국민은행 429501-01-266034 신한은행 436-01-021946 예금주:열린선원 *회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열린선원 원장 법현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호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礙)한 화엄으로 잠입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의 : 총무원 054)632-2799
- 창주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주주 해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람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